GIST, NH투자증권과 첨단산업 특별강연 개최…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 NH투자증권 고민성 애널리스트 초청… '2026 GIST 과학기술문화 페스타' 일환
- 첨단산업 주요 동향과 미래 전망 공유… GIST 학생·지역민 대상 금융·산업 분야 전문지식 전달
- NH농협금융 '서남권 NH금융허브' 지원사업과 연계… NH투자증권,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 기탁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11월 13일(금) GIST 오룡관에서 **NH투자증권**(대표 신재욱·배광수)**과 함께 첨단산업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강연 종료 후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026 GIST 과학기술문화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NH농협금융이 전남·광주 지역의 첨단산업 지원과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서남권 NH금융허브' 사업과도 연계**됐다.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첨단 산업의 미래(The Future of Advanced Industries, Through an Analyst's Lens)**'를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는 **고민성 NH투자증권 글로벌 IT 담당 애널리스트**가 강연자로 나서 GIST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의 주요 동향과 미래 전망을 소개했다.



▲ 11월 13일(금) GIST 오룡관에서 열린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첨단 산업의 미래' 특별강연에서 고민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강연하고 있다.

고민성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IT 산업의 변화와 첨단산업의 성장 가능성, 시장 동향**

등을 금융투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금융투자 현장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과 산업·금융시장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첨단산업의 미래를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임기철 GIST 총장과 황태석 NH투자증권 중서부본부장, 민유선 NH투자증권 광주WM2센터장, 최홍석 NH투자증권 ESG추진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GIST의 교육·연구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 11월 13일(금) GIST 오룡관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서 GIST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지 GIST 대외협력처장, 정성호 GIST 교학부총장, 황태석 NH투자증권 중서부본부장, 민유선 NH투자증권 광주WM2센터장, 최홍석 NH투자증권 ESG추진부장.

황태석 NH투자증권 중서부본부장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금융과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남권 지역의 산업 및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IST 임기철 총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데서도 나온다"며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산업 전반을 바라보는 폭넓은 안목을 제공**하고, **NH농협금융 및 NH투자증권과**

의 협력이 지역의 과학기술과 금융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